

조계종 2,3급 승가고시 열린다

30일부터 한국문화연수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은)은 “조계종 고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제2급, 제3급 승가고시를 개최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81명, 비구니 85명 등 총 166명의 스님이,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267명, 비구니 168명 등 총 435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2급 승가고시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입학 다음날인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3급 승가고시는 '비구1차', '비구2차', '비구니'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교육원은 이번 승가고시는 예년과 달리 고시 하루 전날 입학해 응시해야 한다고 응시자 스님들에게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첫 출전 사관생도

나란다 축제 공동 대상

민경철·김지현 생도 수상 영예

제5회 나란다축제에서 신설된 사관생도 부문에 육군사관학교 민경철 생도와 육군3사관학교 김지현 생도가 공동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각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10월 18일 제5회 나란다축제 중·고등·군장병 부문, 사관생도 부문 등에 대한 개인상과 단체상, 특별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만점 수상자를 배출했던 군장병 부문은 올해에도 만점 수상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호국비룡사에서 시합을 치른 허재준 상병(1포병여단 898대대 2포대)과 호국장영사에서 응시한 고준태 일병(육군 군수사령부 제6탄약창본부중대)이 공동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 장병들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안양 연현중학교 3학년 박진영 학생(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전주석 학생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2회 은정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된다.

신종일 기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아픔, 명상으로 달래요”

홍대 청소부 찾아간 조계종 노동위 상담소 '도반'

“사람의 마음으로 연인의 마음으로 수희의 마음으로 평등의 마음으로 평정의 마음으로 나의 에너지를 당신께 드립니다.”

10월 15일 낮 12시 30분 홍익대 무용실, 이완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의 대중은 서로 짝을 지어 자비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화기에 애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른 점심시간을 가진 이들은 다름아닌 집단 해고로 아픔을 겪었던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업무 노동자들이었다.

일명 '홍대 청소부 아줌마'라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이들이 조계종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 위원장 종호)가 주최하는 프로그램 '도반'에 참여한 것이다. 노동위는 지난 4월 노동문제의 불교적 해법 실천 방안의 하나로 불교 상담 개발원과 함께 노동자 심리 상담센터 '도반'을 개소했다. 지금까지 노동위는 해고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3회의 템플스테이도 개최한 바 있다.

노동위 양한웅 팀장은 “공무원, 철도 해고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35회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감이

증폭되어 우울, 불안이 심해지면서 가족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담과 템플스테이 명상 등을 통해 노동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선업 스님(행복치유 센터 원장)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 역시 노동위의 이런 취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학교측과 용역업체의

점심시간 이완명상 프로그램 진행

개별상담·템플스테이도 반향 커

11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제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뒀다가 다시 복직한 바 있는 홍대 청소 노동자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다.

이숙희 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분회장)는 “노동위에서 주최했던 마곡사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사찰 문화체험을 하며 그동안 지쳤던 심신을 달랠 수 있어 회원들 모두 반



조계종 노동위가 10월 15일 홍익대 청소노동부의 작업 현장을 찾아 이완명상을 실시했다. 노동위는 지난 4월 노동자 심리 상담센터 '도반'을 개소, 해고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상담,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응이 좋았다. 이렇게 스님이 현장에 직접 찾아 오셔서 이완명상을 진행해주니 지난날의 아픔이 녹아들고 심신도 맑아지는 듯 하다”고 소감을 전한다.

노동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두드려주고 호흡을 하면서 이완명상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다. 명상을 마친 서복덕 씨(59)는 “마음을 비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시간만 된다면 자주 명상을 하고

싶다. 스님이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금옥(61) 씨는 “템플스테이에서 숲속 명상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모든 근심 내려놓고 명상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얘기했다.

이번 수업은 이완-집중-몰입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선업 스님은 “관찰을 통한 이완명상이다. 모든 존

정혜숙 기자

전국 산재 근현대 불교문화재 총망라

불교문화재,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보고서' 발간

근현대 불교 문화유산을 조망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립)는 2013년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에서 실시하는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연구 사업'을 맡아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근현대 시기 불교조각, 불교회화, 공예 및 전적 분야 81건의 유물이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주요 유물을 살펴보면, △공주 신원사 소림원의 '불입상(佛立像)' △양산 통도사 '마애삼존불좌상(磨崖三尊佛坐像)' △진주 의곡사의 '괘불도(掛佛圖)' △서울 흥천사의 '감로도(甘露圖)' △공주 마곡사의 '대선사금호당진영(大禪師錦湖堂眞影)' 등이다.

특히 불교 전통의 보존과 대중 불교의 전환을 보여주는 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 및 육필원고'가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책은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 스님(白龍城, 1864~1940)이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 문화의 우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마곡사 대선사 금호당 진영. 총 81건의 유물이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조사됐다.

근현대 불교문화재 81건 수록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계획도

수성을 알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한글로 번역한 경전이다. 전북 장수 죽림정사 용성기념관에 <조선글화엄경> 초판본 12권 완질과 그 육필원고가 소장돼 있다.

홍천사 감로도의 경우 일제 강점기 사회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등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 대거 실렸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한국불교는 1,700여 년간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여 전통성이 강하지만, 근대에 유입된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하여 신문물 성격의 근대성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역사의 단절 없이 지속해서 민족성을 살린 전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불교를 대중화하여 증생과 함께하는 대중 불교로 전환하는 일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불교 유물을 선정하고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미래부 선교문건 관련 예방교육 권고”

문체부, 15일 종평위에 자문회의 결과 회신

과도한 선교 계획으로 물의를 빚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독교회의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직원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실효성 높일 권고했다. 문체부는 10월 15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 자문위원회 결과를 회신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개인적 문건이라 종교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

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교회 사업계획안 한 과학전문지를 통해 알려졌다. 전 직원의 복음전파와 기독교 창조를 목표로 하는 등 과도한 선교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조계종 종평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해당 문건 작성 경위와 배경조사 및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사실 조사 등을 요구했다.

신종일 기자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불시넷 18일 성명 발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후)가 밀양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또 오는 11월 10일 밀양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를 위한 '밀양화쟁버스'도 조직한다.

불시넷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

해 “국토부가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부품재검증 결과 제어계비정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년 8월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시급하다’는 논리는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이 70~80대인 마을 주민들이 뒷산 송전탑 예정지를 지키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살터를 한순간에 빼앗길 처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 11교구본사 불국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재	무	종	천
학	장	덕	민	사	회	종	민
선	원	장	종	우	포	교	성
총	무	종	천	호	법	각	천
기	획	정	문	사	서	정	빈
교	무	정	수	회	계	성	명
				신	도	이	영
				도	회	장	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